

# 중국의 경제발전 현황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1. 2002년 이후 중국경제 발전의 특징

□ 2002년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주기의 새로운 상승단계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경제발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 경제 고성장 속 저(低)인플레이션 시현

□ GDP 증가율이 최근 4년간(2003년~2006년) 연속 10%~10.7%에 달하면서도 소비자가격이 연평균 1.5% 상승하는데 그치며 뚜렷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표출되지 않았음.

□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거시조정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경제가 시장경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공급과잉 경제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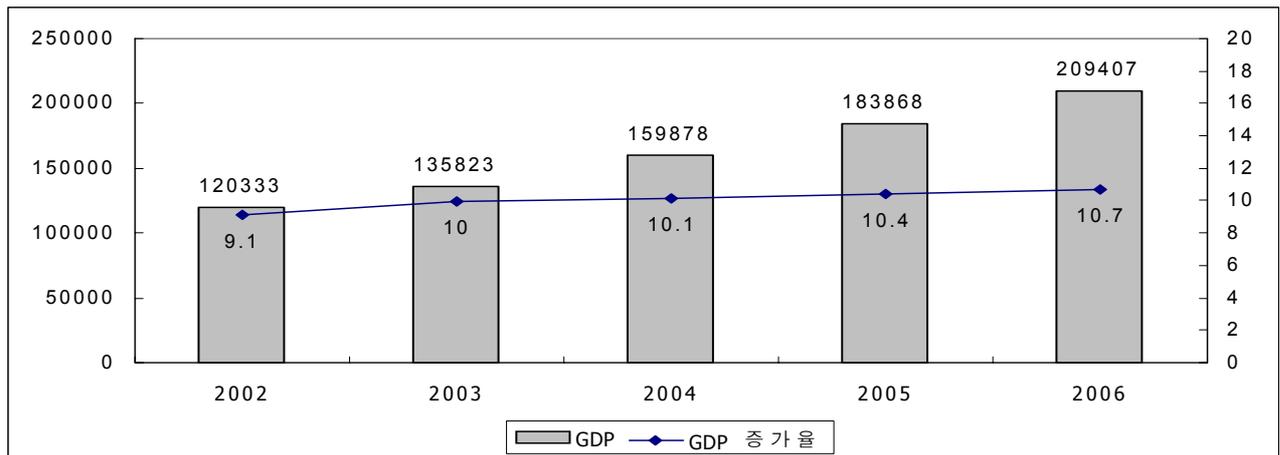
- 2002년 이후 고정자산 투자율이 고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저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를 보임.

1) 본 자료는 중국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린자우무(林兆木) 교수가 2007년 5월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주최 한·중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중국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의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임.

- 2003년 이후 연속적인 거시조정 조치를 통해 기준율을 8차례 상향조정(2003년 9월 7% → 2007년 4월 10.5%)하고, 대출금리(1년 만기)를 4차례 인상함(2002년 3월 5.31% → 2007년 3월 6.39%)<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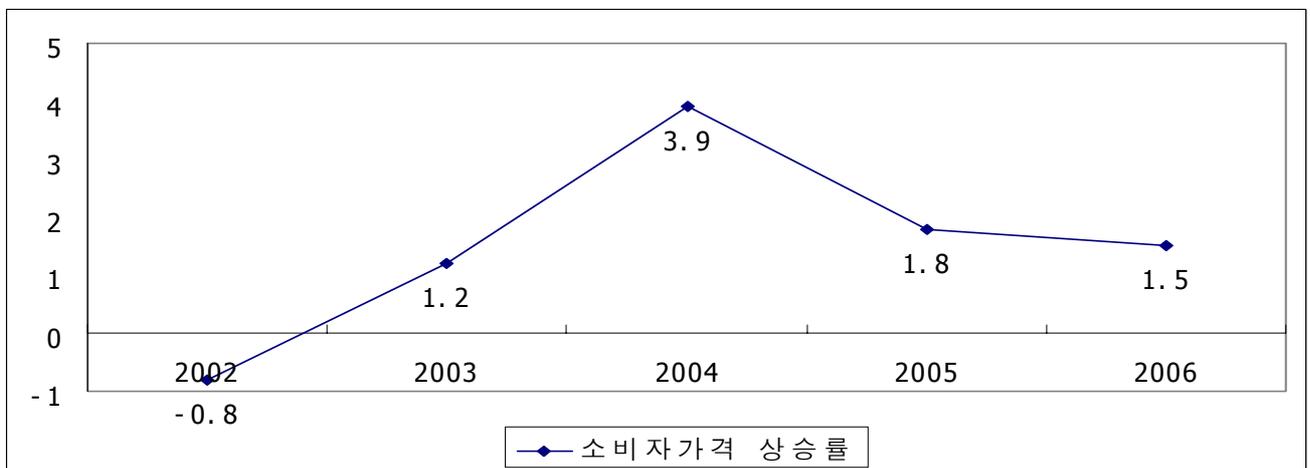
<그림 1> 중국 GDP 규모 및 증가율 추이(2002년~2006년)

(단위: 억 위안, %)



<그림 2> 소비자가격 상승률 추이(2002년~2006년)

(단위: %)



## 나. 공업화, 도시화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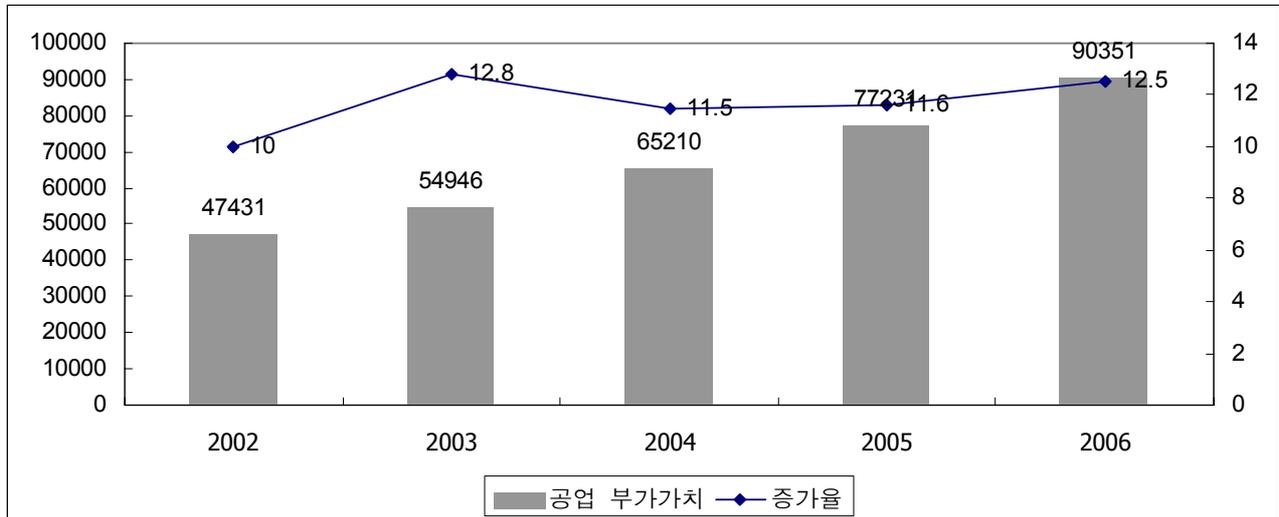
□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주요 공업제품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함.

2) 중국인민은행은 2007년 4월 29일 기준율을 0.5% 포인트 상향조정(10.5%→11%)한데 이어, 5월 18일 기준율을 11%에서 11.5%로 또 한차례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18% 포인트 인상(6.39%→6.57%)한다고 발표함.

- 공업 부가가치의 증가율이 2002년 이후 11.5% ~ 12.8%를 기록

<그림 3> 공업 부가가치 증가

(단위: 억 위안, %)



- 2002년~2006년 기간 중 원탄(70%), 천연가스(93%), 전력(91%), 조강(178%), 철강재(194%), 시멘트 (87%), 승용차(449.9%) 등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함.

- 이에 따라 공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9.4%에서 2006년 43.1%로 증가

- 도시인구 비중은 39%에서 43.9%로 증가하여 매년 평균 1% 포인트씩 늘어남.

□ 2002년 이후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를 촉진한 요인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음.

-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1998년부터 내수확대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하여 1998~2007년 사이 장기 건설국채를 발행하고(누계 1조 1,000 억 위안 규모) 전력, 교통, 도시 공공시설 등의 건설에 투입

- 도시주민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주택, 자동차 소비 수요가 확대

- 국민경제와 사회의 정보화가 신속히 추진되어 공업화를 촉진

- 대규모 투자가 도시화 발전을 촉진하였는데, 2002년~2006년 기간 도시지역 투자는 누계 30.89조 위안에 달해 전사회 고정자산투자 총액의 8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전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

#### 다. 시장경제 시스템 심화

□ 시장경제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경제 고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현재 사회소비품 판매가격, 공업품 출하가격, 농산품 구입가격 등은 95% 이상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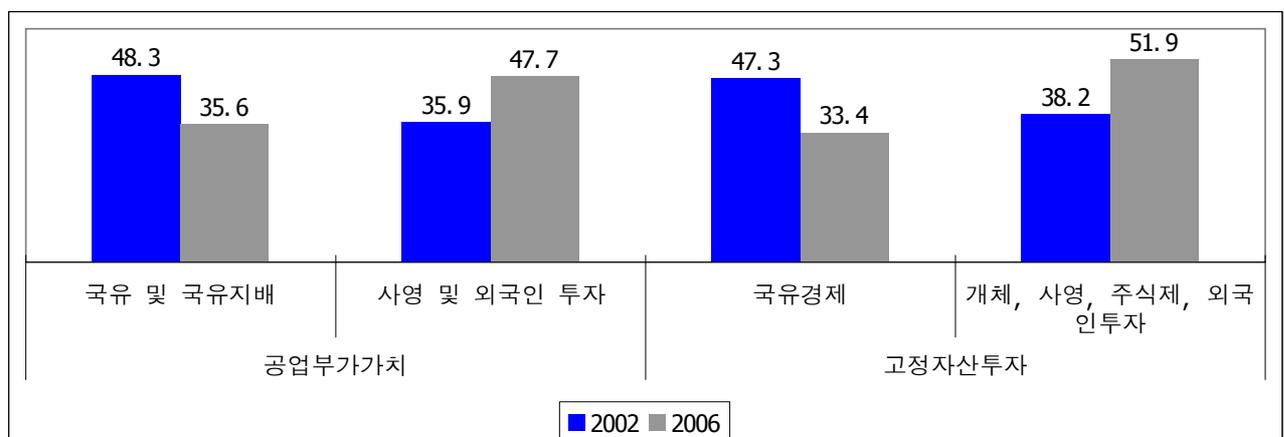
- 이와 함께 투자주체와 시장주체가 다원화되고 개체경제, 사영경제, 외국인투자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함.

- 공업 부가가치 중 국유 및 국유지배기업의 비중은 2002년 48.3%에서 2006년 35.6%로 감소하였으며, 사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비중은 35.9%에서 47.7%로 증가

- 고정자산 투자에서 국유경제의 비중은 2002년 47.3%에서 33.4%로 감소한 반면, 개체경제, 사영경제와 주식제경제,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38.2%에서 51.9%로 증가

<그림 4> 투자 및 시장주체의 다원화

(단위: %)



-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 등으로 인해 중국 국내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 라. 대외경제 성장세 지속

□ 중국의 대외무역,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임.

- 수출입 총액은 2002년 6,208억 달러에서 2006년 1조 7,607억 달러로 늘어남. 이 가운데 수출은 3,256억 달러에서 9,691억 달러로, 수입은 2,952억 달러에서 7,916억 달러로 증가
-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6,500억 달러에 달하며 그 가운데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5년간 누계는 3,087.9억 달러에 달함.
- 중국의 해외투자 성장도 비교적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2006년 중국 해외직접투자(비금융부문) 누계는 367.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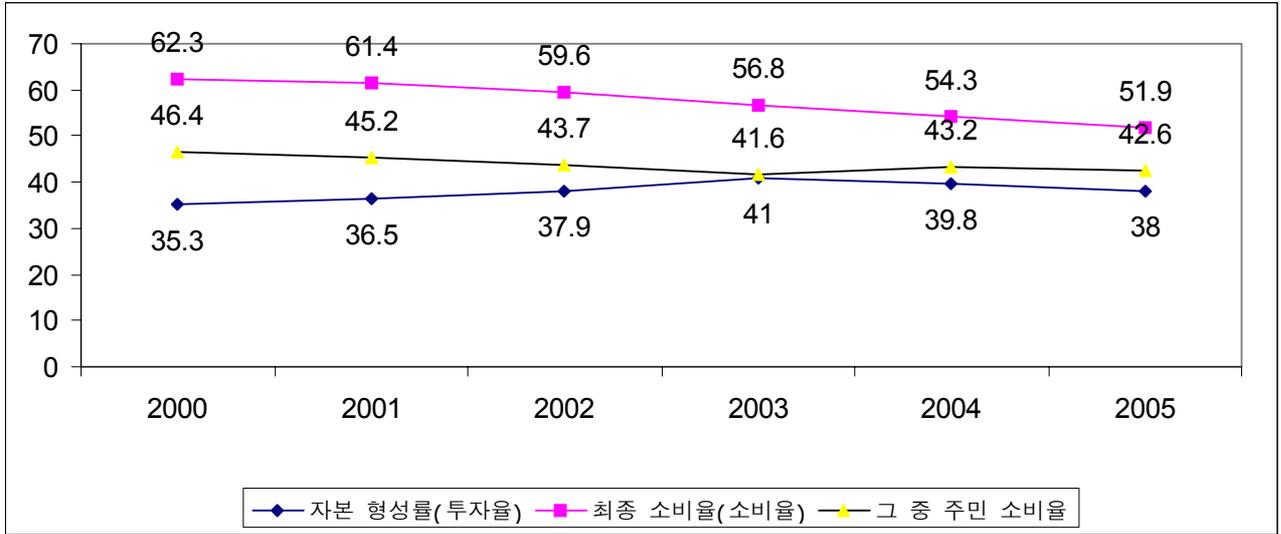
## 2. 중국경제의 문제점

### 가. 경제성장 방식의 불균형

-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투자와 대외무역에 의존함으로써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대외무역 흑자와 외환보유고의 급증으로 인한 대내외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
- 2000년 35.3%였던 투자율이 2005년 42.6%로 상승한데 비해 소비율은 동기간 62.3%에서 51.9%로 하락. 특히 주민 소비율은 46.4%에서 38%로 하락
- 이처럼 소비율이 하락한 것은 총 저축률의 상승과 관련이 깊는데, 중국의 총 저축률은 기업저축과 정부저축의 대폭 증가로 인해 1990년대 평균 39.8%에서 2006년에는 49%로 상승

<그림 5> 중국의 투자율 및 소비율 추이(2000~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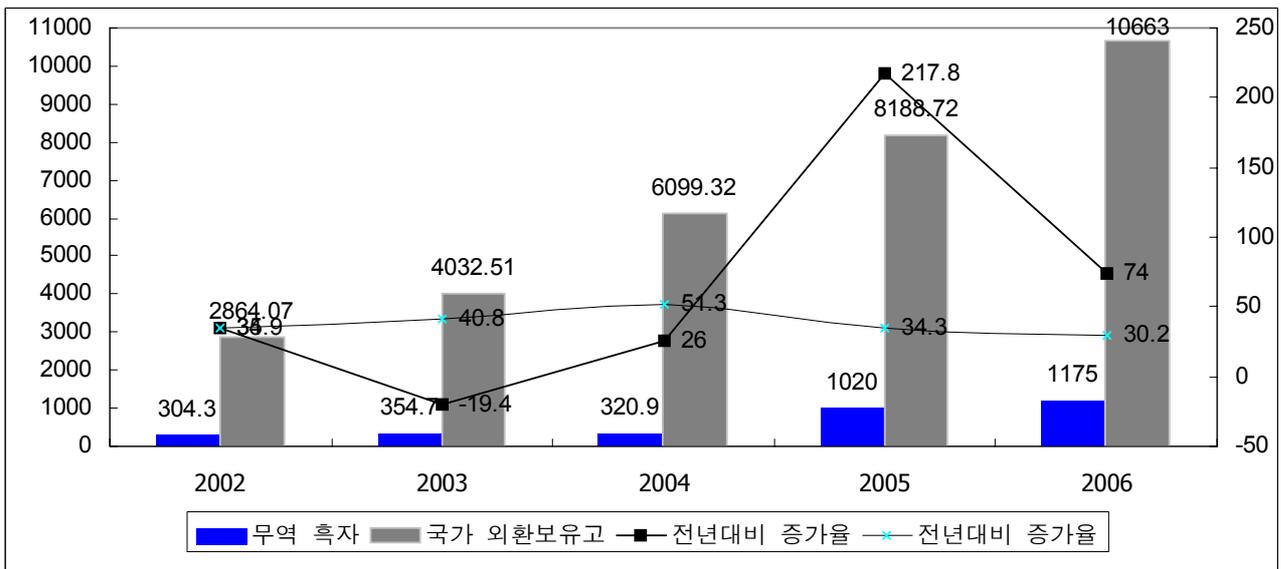
(단위: %)



- 대외무역 흑자는 2002년 304.3억 달러에서 2006년 1,77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동기간 외환보유고는 2,864억 달러에서 1조 663억 달러로 급증

<그림 6> 중국의 대외무역 흑자 및 외환보유고 추이(2002~2006년)

(단위: 억 달러, %)



- 이러한 경제성장 방식의 불균형 요소들은 과도한 화폐공급을 초래하여 유동성 과잉문제를 낳고 위안화 절상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나. 도농,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

-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양자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임.

- 2002~2006년 도시 주민 일인당 가처분 소득은 61% 증가하였으나, 농촌 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은 동기간 33.2% 증가하는데 그침.

- 또한 2002~2006년 도시 주민 엔겔계수는 37.7%에서 35.8%로 하락하였으며, 농촌 주민의 엔겔계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지만(46.2%에서 43%로 하락) 여전히 도시 주민보다 높은 수준임.

- 도농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생산성 저하,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결핍 및 인프라 시설 낙후, 공공서비스의 부족 등이 지적됨.

- 현재 중국의 1차 산업(주로 농업)의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8%에 이르고 있지만 1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에 그치고 있음.

- 2002~2006년 도시지역 투자가 전체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6%에서 85.1%로 늘어난 반면 농촌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농촌의 인프라 시설이 낙후됨.

- 정부의 공공서비스(교육, 위생, 의료, 문화 등)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동, 중, 서부지역 경제는 모두 크게 발전하였으나, 그 발전 속도와 수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 동부의 10개 성과 직할시는 중국 전체 면적의 9.5%, 총 인구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 생산총

액은 전국 GDP의 55.6%를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서부 12개 성, 구, 시는 전체 면적의 71.5%와 총 인구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생산총액은 전국 GDP의 16.9%에 그치고 있음.
- 동부 지역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곳은 상해, 북경, 천진, 절강, 강소 등 5개 성으로 이들의 1인당 GDP는 평균 30,786위안이며, 귀주, 감숙, 운남, 안휘, 광서 등 서부 지역의 5개 성의 1인당 GDP는 평균 7,812위안으로 거의 4배에 가까운 격차가 나고 있음.
- 특히 동부 지역의 상해시 1인당 GDP는 서부 지역 귀주성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은 수준임.
- 또한 대외경제를 담당하는 비중에서도 양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2001년~2006년 동부지역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체의 86%이상(실행액 기준)을 차지하는데 반해 서부지역의 비중은 3% 내외에 그침.
-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동부 지역의 10개 성은 88%를 차지하지만 중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은 12% 내외

#### 다. 자원 및 환경문제

- 중국은 인구 규모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1인당 경작지 면적, 담수자원과 삼림자원은 각각 세계 평균수준의 32%, 27.4%, 12.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와 중화학공업에 편중된 경제성장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에너지와 기타 자원에 대한 소모도 매우 큼.
- 2002년~2006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15.18억 톤 표준석탄에서 24.57억 톤 표준 석탄으로 71.5%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GDP 증가율은 누계 61.5%로 단위 GDP증가율당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소비 탄성계수는 1.06에 이룸.
- 또한 도시화, 공업화,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인해 대량의 농경지가 점용됨으로써 농경지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환경오염도 심화됨.

- 2002년~2006년 전국 농경지 면적은 누계기준 583.9만 헥타아르 감소되어 평균 매년 117만 헥타아르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총배출량은 2002년 1,367만 톤에서 2006년 1,431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산화황(SO<sub>2</sub>)의 배출량 역시 2002년 1,927만 톤에서 2006년 2,594만 톤으로 증가
- 2006년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COD와 SO<sub>2</sub>의 배출량 증가율은 정부 목표치인 '2% 감소'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각각 1.2%와 1.8% 상승
- 중국정부는 자원 및 환경문제에 대해 2007년부터 이전에 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각 지방의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중앙정부가 규정한 표준치를 초과할 경우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비준하지 않도록 함.

### 3. 중국경제 전망과 성장 전략

- 현재 중국경제가 처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중국경제는 당분간 고성장세를 지속하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의 목표는 GDP규모를 2020년까지 2000년의 4배(10년에 2배씩, 20년간 4배 증가), 1인당 GDP는 2010년까지 2000년의 2배로 각각 확대하고, 실질GDP증가율은 2006년~2010년까지 매년 평균 7.5% 수준을 유지하는 것임.
- 미국 카네기재단과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공동으로 작성한 "2006년~2020년 중국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2010년 중국 GDP의 연간 증가율은 8% 내외, 2010년 중국 전체 GDP의 규모는 3.6조 달러(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로서 여전히 일본의 2002년 GDP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 1인당 GDP는 약 2,670달러로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터키의 현재 소득 수준에 그치고, 2010년~2020년 중국 GDP의 연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

- 2020년에는 GDP 규모 7.5조 달러, 1인당 GDP는 약 5,3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의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하고 경제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사상을 제출함.

- 첫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지속가능한 과학적 발전관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함. 둘째, 장기적으로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진함.

□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경제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의 방식을 전환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투자 주도형 성장방식을 소비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발전의 불균형 시정

- 중화학 공업에 편중된 경제발전 방향을 선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

- 자원 소모적 발전을 지양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 4. 중국 경제발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와의 연계성 증진으로 인해 앞으로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임.

### 가. 선진 경제에 대한 영향

□ 선진국이 상당수의 생산기지를 저가의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으로 이전하고, 대규모 중국의 저가 노동력이 국제시장에 공급됨으로써 선진국의 상품가격과 노동, 자산, 서비스 등의 가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

-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가격이 뚜렷이 인하됨으로써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2년 이후 5년간(2002년~2006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6%, 2.3%, 2.7%, 3.4%, 3.2%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영국의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나. 동아시아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

- 2002년 이후 중국은 미국, 유럽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아시아 기타 국가와는 오히려 대 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함.
- 2001년~2006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4,68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한국, 일본, 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6,063억 달러에 달함.
- 이는 ‘중국은 수출 위주의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부품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였다’라고 하는 한 미국 학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 다.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 최근 해외 학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여 년 간의 고속성장을 통하여 중국은 이미 세계 제 4위 경제대국(명목 GDP 기준), 제 3위 수출국, 제 1위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으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1인당 GDP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크고 향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주요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 지속과 주민소득의 향상으로 자본과 기술 집약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고급제품과 소비용 내구재의 수입 증가, 출국 관광객 수의 증가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은 소비와 수입대국으로 부상하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은행이 발표(2007.3. 24)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중국의 소비액은 세계 소비 총액의 5.4%를 차지하여 이탈리아와 비슷하고, 미국(세계 소비 총액의 42% 차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또한 일본, 독일, 영국(3개 국가가 세계 소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1%, 7.3%, 6.6%)보다도 낮음.

- 그러나 2015년에 이르러 중국의 소비액 비중은 14.1%로 증가하여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추정됨.

## <질의·응답>

질문 1: 최근 중국 증시는 2년 동안 약 4배의 성장세를 보이며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책은?

답변 1:

중국 주식시장은 최근의 활황세를 보이기 이전 5년간은 경제 고성장 추세와는 달리 부진하였음. 2006년 주식시장의 호황은 비유통주 개혁으로 인한 주식시장 구조의 합리화,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고성장 지속), 주요 국유은행을 비롯한 상장 대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의 요인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제고된 정상적인 결과임. 그러나 주식시장의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고 국제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PER가 높다는 점, 동일한 주식의 가격 차이(홍콩 주식시장과 중국 본토 주식시장과의 차이) 등의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음.

비이성적인 주가 상승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정부는 주식시장(상장회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야함. 중국정부의 금리인상 조치는 비단 주식시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며, 해외

정부의 금리인상 조치만큼 효과가 크지 않음. 이는 중국의 저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을 비롯한 직접적인 자금조달시장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임.

그러나 주식시장에 대한 강경한 조치는 해외자본의 급작스런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중국정부는 유연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임.

- 질문 2: 1) 중국 주식시장의 급작스러운 불안은 경제에 어떠한 충격을 줄 수 있나?  
2) 중국의 주가 상승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부가 주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답변 2:

- 1) 2007년 1/4분기 중국의 주민 저축률이 감소세를 보였는데 상당한 규모의 예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됨. 만일 주식시장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주민의 소비, 기업의 이익, 자금 유동성 흐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특히 금융기관에 미치는 여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 투자자금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중국 주민의 자산구조를 볼 때 대부분이 은행예금이며 기업 자금의 대부분도 고정자산에 투입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가계자산의 60%가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일반 주민의 자산 중 주식투자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증시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 2)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기보다는 수요의 급증(주식투자 열기)에 있다고 판단됨. 또한 최근 새로운 상장회사들이 출현하고 있지만 이들은 주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상장한 것이 아닐 것임.

질문 3: 최근 중국은 주민 저축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21%임(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79%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예금금리 인상, 이자소득세 취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3:

최근 중국의 저축률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주식시장 활황세로 인해 주민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결과임. 개인적 견해는 현재 실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취소, 예금과 대출금리의 인상 등의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특히, 대출금리의 인상은 주식시장에 대한 과도한 투자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과 중앙은행의 동의를 거쳐야하나, 소비자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마이너스의 실질금리 현상이 지속된다면 금리인상은 시간문제라고 보임<sup>3)</sup>.

질문 4: 도농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정부가 계획경제 시기처럼 농산물 생산량을 통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인상을 통해 농민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는?

답변 4:

현재 중국의 농산물 가격의 대부분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인상을 통한 농민 소득의 증가는 쉽지 않은 문제임. 또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농산물 가격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농업세 면제, 농촌지역의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는 가능함.

중국의 농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 현재 농산물 가격이 낮은 주요한 원인은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이 농산물을 구매할 능력이 없기 때문임. 7~8억 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들이 농산품에 대한 구매력이 없다면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기 힘들 것임. 이에 따라 농민 대다수가 도시로 이전하여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15년 쯤 이후에야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 5: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 중 대내외 불균형 문제도 흔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5: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은 경제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함.

첫째, 과거 중국정부가 지향하였던 ‘수출장려, 수입제한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환경오염, 에너지 고소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취소하는 한편, 첨단기술 제품, 자원성 제품의 수입을 확대해야함.

둘째, 외환관리정책에서 ‘유입 완화, 유출 통제(寬進嚴出)’의 정책을 조정해야 함. 현재 자격요건을 구비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자와 외자의 중국내 채권발행을 격려하고 있음.

3) 실제로 중국인민은행은 5.18일 1년 만기 예금기준금리를 0.27% 포인트 인상(2.79% → 3.06%).

셋째, 수입대체 산업에 대한 정책도 조정해야 함.

넷째, 환율 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환율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